‘COP33 유치’ 새정부 국정과제 채택 민·관 공동대응

전남도, 현장 간담회서 실천과제 논의
여수 중심 남해안 남중권 개최 총력
金지사 “지방 주도 균형발전 전환점”

김영록 전남지사가 2일 여수시청에서 열린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여수 유치를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2일 여수시청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동서포럼,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여수YMCA, 여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지역 민·관 대표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매년 198개 국가가 참석해 기후변화협약 이행 방법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회의다.

2028년 33차 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대한민국이 유치 의사를 표명하면 아·태지역 그룹에서 협의를 통해 개최국을 결정한다. 그동안 전남도는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유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으며 여수시와 함께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이 참여하는 공동 유치 모델을 통해 유치 기반을 넓혀왔다.

남해안 남중권은 전남 동부권의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과 경남 서부권의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함양 등 12개 시·군이 포함된다.

전남도는 앞으로 국정과제 반영, 국가 유치 의사 표명, 아·태지역 그룹 내부 협의 결정, 개최 도시 확정을 목표로 한 유치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전남과 경남은 2008년부터 남해안 남중권 COP 유치를 위해 힘써왔다. 특히 COP28 유치를 위해 서울·경기 등 11개 광역지자체의 지지까지 이끌어냈지만 2021년 정부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양보하는 바람에 실패하기도 했다.

김영록 지사는 “COP33은 대한민국이 기후 리더십을 세계에 천명하고 지방 주도의 균형 발전을 실현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유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김 지사는 “여수산단이 고부가가치 산단이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현재 어려움을 겪는 여수산단의 구조조정이 친환경적으로 이뤄지도록 COP33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또 “갯벌, 해조류가 블루카본을 생산하고 탄소중립에 좋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블루카본과 해상풍력 등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의제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여수세계섬박람회가 COP33을 유치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 AI 실증·사업화 협력 본격화

AI혁신 기술기업 11개사 MOU

광주시가 자율주행·헬스케어·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잇따라 유치, 광주의 인공지능(AI) 기반시설을 활용한 실증과 사업화 촉진에 나섰다.

광주시는 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스트에이드, 이에이트㈜, ㈜에스더블유엠, ㈜78리서치랩, 데브디㈜, 리바이브웨어스튜디오, ㈜써니마인드, ㈜엠피웨이브, ㈜이제이엠컴퍼니, ㈜이지에이아이, ㈜잇더컴퍼니 등 AI 분야 유망기업 11개 사와 추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이들 기업과 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증 테스트를 통해 기술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동반 상승 효과를 창출하고 AI 산업 생태계를 한층 견고하게 다진다는 구상이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김남현 ㈜이스트에이드 대표이사, 김진현 이에이트㈜ 대표이사, 김기혁 ㈜에스더블유엠 대표이사, 김경동 ㈜78리서치랩 대표이사, 김기태 데브디㈜ 대표이사, 오고운 리바이브웨어스튜디오 대표, 김선희 ㈜써니마인드 대표이사, 박형민 ㈜엠피웨이브 대표이사, 윤의진 ㈜이제이엠컴퍼니 대표이사, 김근희 ㈜이지에이아이 대표이사, 김봉근 ㈜잇더컴퍼니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기업 대표들은 “광주의 AI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현장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지역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만들겠다”며 “광주가 대한민국 AI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AI 기업들이 기술을 실현하고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도시”라며 “이번 협약이 단순한 ‘선택’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광주시 ‘CES 2026’ 공동관 운영

20일까지 참여기업 17개사 모집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내년 1월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에 참가할 지역 기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광주시는 광주공동관, 창업진흥원 ‘K-스타트업(Startup)’ 통합관 참가 기업을 포함해 총 17개 사 규모로 광주관을 조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보다 2개 기업이 늘어난 규모다.

모집 대상은 신산업·혁신기술·인공지능 분야 지역 중소기업이다. 광주시는 선정기업에 전시부스비, 항공료, 물류비, 통역비, ‘CES 혁신상’ 신청비 및 자문 등을 종합 지원한다.

참가 희망 기업은 13-20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자우편(CES@gicon.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누리집이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창업도약팀(062-610-2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변은진 기자

“금호타이어 생산공장 조기 복구를”

신수정 의장, 2호선 공사 대책도 촉구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은 2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생산공장 조기 복구를 위해 광주시와 관계 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장은 이날 정례회 개회사에서 “금호타이어 공장의 가동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개별 기업 피해로 그치지 않고 협력업체 등의 피해가 연쇄적으로 일어나 지역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비정규직과 운송 노동자를 포함한 2천500여 노동자들, 그들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장은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조 시설의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화재 대응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지속되는 민원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신 의장은 “중흥동 219정거장 인근 주민들은 수년째 자신의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산다”며 “그럼에도 집행부와 시공사는 땜질식으로 소극적 대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 의장은 “도시 발전과 시민의 교통 복지를 위해 도시철도 같은 필수 인프라 확충은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생활 터전과 안전이 위협받아선 안된다”며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은진 기자

광주시,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2곳 선정

광주시는 2일 “올해의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으로 휴먼리소스 유한회사와 ㈜참조은푸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2개 기업에는 각각 2천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경영 상담(컨설팅), 판로 확대, 홍보 마케팅, 네트워크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휴먼리소스 유한회사는 건물 시설 관리, 청소, 방역, 컨설팅 등 건물 관리 전문 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참조은푸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위탁 급식 전문 기업으로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을 통해 지역 상생을 실현하고 있다. /변은진 기자